

新聞社 資料室에 대한 評價

— 文獻傳達能力과 檢索效率을 中心으로 —

盧 東 助*

목 차

1. 머리말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의 대상
 - 2.2 가설
 - 2.3 연구의 기준 및 방법
 3. 자료의 수집
 4. 문헌전달능력
 5. 검색효율
 - 5.1 '안락사'와 관련된 탐색
 - 5.2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탐색
 - 5.3 '노인산업'과 관련된 탐색
 - 5.4 종합
 6. 신문사별 평가
 7. 맺음말
- 참고문헌
부록

1. 머리말

모든 정보서비스 기관들이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사 자료실도 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위해 존재한다. 신문사 자료실의 정보봉사는 신문제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자료실의 일차적인 기능은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강사

2 한국비블리아 제7집

그러면 자료실 이용자는 누구인가? 또, 이들은 어떤 정보를 바라고 자료실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신문사 자료실의 주 이용자는 제작에 참여하는 기자들이다. 기자들의 정보요구는 다양하며 또, 이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대한다. 이는 기자들이 갖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다.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료실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는 다른 자료실과는 차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요하는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이용자들의 정보청구에서부터 이들의 손에 정보가 전달될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신속한 정보를 요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와 현실을 비교한다. 또, 정보전문가를 통해 검색된 자료 중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요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리이용자로 하여금 연구대상으로 삼은 서울소재 종합일간지 자료실을 직접방문, 탐색을 시도한다. 대리이용자는 준비한 3개의 구체적인 탐색식을 제시하고 탐색에 걸린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체크해 문헌전달능력을 알아 본다.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언론종합정보은행(KINDS: Korean Intergrated Newspapers Database System)¹⁾을 통해 검색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전체문헌을 확정하고 이를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비교해 신문사 자료실의 검색효율을 알아 본다. 검색효율은 재현율과 정확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한다. 즉, 본 연구는 문헌전달 능력과 검색효율의 두 측면에서 국내의 신문사 자료실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신문사 자료실들이 현행시스템을 분석, 수정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연구자에겐 더 할 나위 없다. 또, 이러한 기대로 본 연구를

1) 한국언론연구원이 1990년 1월 1일 부터 국내 9개 종합일간지의 종합면, 경제면, 사회면, 외신면, 해설면의 신문 기사를 전산입력하여 13가지 항목으로 검색가능하도록 구축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이다. 韓國言論研究院, KPI NEWSBASE 利用者 指針書, 서울, 同 研究院, 1990.

시작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의 대상

ㄱ. 연구대상 자료실의 한정

1993년 12월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전국의 일간신문은 모두 71종이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중앙의 종합지가 9종, 지방의 종합지가 45종, 경제지 10종, 스포츠지 3종, 영자지 및 외국지 3종, 문화지가 1종이었다. 이 중 경북일보, 부산매일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등에서 모두 9종의 자매지를 발행하고 있어 자체에 자료실을 갖춘 곳은 62개사로 나타났다.²⁾ 문헌전달능력과 검색효율을 알아 보기 위해 62개 자료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일간지 자료실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곳은 모두 9개사였다.

ㄴ. 탐색대상 자료의 한정

신문사 자료실의 핵심자료는 기사스크랩과 사진이다. 물론 전술한 두 자료 외에도 도서,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필름 등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 자료실이 다른 자료실과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기사스크랩과 사진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완전한 평가가 되려면 이들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핵심자료인 기사스크랩에 한정해 연구를 실행한다.

ㄷ. 외부 이용자에 의한 탐색

2) 韓國言論研究院, 韓國新聞放送年鑑 93. 서울, 同 研究院, 1993. pp. 268-269.

4 한국비블리아 제7집

외부 독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신문사들이 앞 다투어 자료실 산하에 독자정보서비스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신문사 자료실의 본업은 제작지원이고 일차적인 기능은 사내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봉사이다. 따라서 신문사 자료실의 문헌전달능력과 검색효율을 알아 보기 위해선 사내 이용자에 의해 탐색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선 많은 제약이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대리이용자로 하여금 탐색을 시도한다.

2.2 가설

신문사 자료실의 주 이용자는 제작에 참여하는 기자들이다. 이들은 각자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요한다. 이 같은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행태에 부응하기 위해 신문사 자료실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을 전제로 본 연구에 적합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신문사 자료실은 문헌전달능력이 좋을 것이다.

가설2. 신문사 자료실은 재현율이 낮을 것이다.

가설3. 신문사 자료실은 정확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4. 자사의 기사에 대한 검색효율이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검색효율 보다 높을 것이다.

2.3 연구의 기준과 방법

ㄱ. 연구의 진행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일간지 자료실을 대상으로 문헌전달 능력과 검색효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리이용자로 하여금 연구대상 자료실을 직접 방문, 탐색을 시도한다. 대리이용자는 준비한 3개의 구체적인 탐색식을 제시하고 탐색에 걸린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체크해 문헌전달능력을 알아 본다. 또, 각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언론종합정보은행(KINDS)을 검색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분류

자의 확인을 거쳐 전체문헌을 확정하고 이를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비교해 검색효율을 측정한다. 검색효율은 재현율과 정확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한다.

ㄴ. 문헌전달능력의 평가 기준

문헌전달능력은 올 등(Orr et al)이 개발한 문헌전달력 테스트(document delivery test)의 도서관 능력지수(capability index : CI)로서 신문사 자료실을 평가한다. 이 방법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헌을 제시해서 전달받는데 까지 걸린 시간을 5단계 척도로 구분, 평가하는 것이다. 능력지수(CI)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CI = \frac{5 - \text{평균속도}}{4} \times 100$$

〈평균속도〉

1. 10분미만
2. 10분-2시간
3. 2시간-하루
4. 하루-일주일
5. 일주일 이상

만일 청구한 자료가 10분 미만에 모두 이용이 가능했다면 그 자료실의 능력지수는 100이 되며, 일주일 이내에 하나도 얻지 못했다면 능력지수는 0이 된다. 이와 같은 문헌전달력 테스트 점수로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문헌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능력에 대한 도서관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³⁾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여부는 도서관 능력지수(CI)의 중

3) Orr, R.H. and Olson, E.E. *Quantitative Measures as Management Tools. Materials prepared for use in a continuing education course, CE 7,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Chicago,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68.

6 한국비블리아 제7집

간에 해당하는 50을 기준으로 한다.

ㄷ. 검색효율의 평가 기준

검색효율은 재현율과 정확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한다. 재현율은 전체 문헌에 대한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이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ext{재현율}(\%) = \frac{\text{방문탐색 결과 검색된 문헌}}{\text{전체문헌}} \times 100(\%)$$

정확율은 방문탐색결과 검색된 문헌에 대한 탐색주제와 관련이 있는 문헌이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ext{정확율}(\%) = \frac{\text{탐색주제와관련이 있는 문헌}}{\text{방문탐색결과 검색된 문헌}} \times 100(\%)$$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시스템은 재현율이 70-90% 이고, 정확율이 8-20% 이다. 이러한 수준들이 현재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여부는 기존 시스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재현율 70-90%, 정확율 8-20%로 한다.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이용자로 하여금 연구대상으로 삼은 서울소재 9개 종합일간지 자료실을 직접방문, 탐색을 시도했다. 탐색 결과 이 중 7개 신문사 자료실이 탐색에 응해 77.8%의 응답율을 보였다(표1 참조) 응답한 7개 신문사 자료실 중 6개사가 제시한 3개의 질문에 답했고 서울신문 자료실은 '어린이비만'과 관련된 자료가 대출중이어서 두개의 탐색에만 응했다. 탐색에 응한 자료실을 대상으로 탐색에 걸린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체크해 문헌전달능

4) 崔成眞, 情報學原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p. 219.

력을 알아 보았다. 또,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종합정보은행(KINDS)의 탐색결과를 기초로 기사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전체문헌을 확정하고 이를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비교해 검색효율을 측정했다. 3개의 탐색식은 각각 게재일과 신문명에 제한을 뒤, '1991년 1월 1일 이후 2년간 국내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3개의 탐색식은 다음과 같다.

- ㄱ. 안락사
- ㄴ. 어린이 비만
- ㄷ. 노인산업(실버산업)

〈표 1〉 응답여부

응답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미응답	중앙일보, 한국일보

4. 문헌전달능력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7개 신문사 자료실 중 6개사가 3개의 탐색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5분 이내에 제시해 국내 신문사 자료실의 문헌전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일보는 3개의 탐색식과 관련된 자료를 단 39초만에 모두 전달해 탁월한 문헌전달능력을 과시했다. 세계일보(1분16초), 국민일보(1분32초), 경향신문(1분44초), 한겨레신문(2분23초), 동아일보(2분36초) 등도 우수한 문헌전달능력을 보여 줬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3개의 탐색식 중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개의 탐색에 대한 반응에서도 3분35초를 기록, 문헌전달능력이 가장 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신문사 자료실은 모두 5분 이내에 관련자료들을 전달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표2 참조)

8 한국비블리아 제7집

〈표 2〉 문헌전달능력

구분 순위	신 문 사	탐색시간	문헌전달능력의 도서관 능력지수
1	조 선 일 보	39초	100
2	세 계 일 보	1분 16초	100
3	국 민 일 보	1분 32초	100
4	경 향 신 문	1분 44초	100
5	한겨레신문	2분 23초	100
6	동 아 일 보	2분 36초	100
7	서 울 신 문	3분 35초	66.7

5. 검색효율

5.1 ‘안락사’와 관련된 탐색

ㄱ. 전체문헌

1991년 1월 1일 부터 2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에 게재된 ‘안락사’ 관련 기사는 모두 19건이었다. 전체문헌이 된 19건의 기사는 한국언론 연구원의 KINDS와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 얻은 자료를 기초로 기사 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ㄴ. 재현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안락사’ 탐색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47.4%로 나타났다. 전체 19건의 기사중 15건을 제시한 국민일보가 78.9%의 가장 높은 재현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12건을 제시한 세계일보(63.2%), 11건의 경향신문(57.9%), 10건의 조선일보(52.6%)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단 2건의 기사만을 제시해 10.5%의 저조한 재현율을 기록했고 한겨레신문도 5건(26.3%)을 전달, 타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표3 참조)

〈표 3〉 재현율

구분 순위	신 문 사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국 민 일 보	15	78.9
2	세 계 일 보	12	63.2
3	경 향 신 문	11	57.9
4	조 선 일 보	10	52.6
5	동 아 일 보	8	42.1
6	한겨레신문	5	26.3
7	서 울 신 문	2	10.5
계		63	47.4

㉔. 정확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안락사' 탐색에 대한 평균 정확율은 88.9%로 나타났다. 검색된 15건의 기사 모두가 탐색주제와 일치한 국민일보를 비롯, 한겨레신문, 서울신문도 100%의 정확율을 기록했다. 또, 검색된 11건의 기사 중 10건이 일치한 경향신문(90.9%), 10건중 9건이 적합한 조선일보(90.0%) 등도 높은 정확율을 보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검색된 8건의 기사 중 5건

〈표 4〉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국민일보	15	15	100.0
2	한겨레신문	5	5	100.0
3	서울신문	2	2	100.0
4	경향신문	11	10	90.9
5	조선일보	10	9	90.0
6	세계일보	12	10	83.3
7	동아일보	8	5	62.5
계		63	56	88.9

10 한국비블리아 제7집

(62.5%)이 탐색주제와 적합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율을 기록했다(표4 참조)

르.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탐색 결과 ‘안락사’와 관련된 19건의 전체문헌중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7건, 중앙일보의 기사가 1건이 있어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을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11건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11건의 기사를 신문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4건, 경향신문의 기사가 3건, 세계일보 2건, 그리고 국민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가 각 1건씩이었다. 반면에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단 한건도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세계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등이 자사의 기사를 모두 제시해 완벽한 재현율을 보였다. 반면에 조선일보(25.0%)와 경향신문(33.3%)은 저조한 재현율을 기록, 타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이 된 국내 5개 신문사 자료실의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54.5%로 나타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재현율 (47.4%) 보다 높았다(표5 참조)

〈표 5〉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자사의 문헌 (건)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세계일보	2	2	100.0
2	국민일보	1	1	100.0
3	동아일보	1	1	100.0
4	경향신문	3	1	33.3
5	조선일보	4	1	25.0
계		11	6	54.5

미.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안락사’와 관련된 19건의 전체문헌에서 자사의 검색효율을 알아 보

는데 사용한 기사는 11건이었고 이 중 6건이 검색돼 평균 54.5%의 재현율을 기록했다. 검색된 6건의 기사 중 5건이 탐색주제와 적합해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정확율은 83.3%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이 자사의 기사에 대해 완벽한 정확율을 보인 반면 동아일보는 검색된 1건의 기사가 잡음으로 드러나 차이를 보였다 (표6 참조)

<표 6>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세계일보	2	2	100.0
2	경향신문	1	1	100.0
3	국민일보	1	1	100.0
4	조선일보	1	1	100.0
5	동아일보	1	0	0
계		6	5	83.3

5.2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탐색

ㄱ. 전체문헌

1991년 1월 1일 부터 2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에 게재된 '어린이 비만' 관련 기사는 모두 16건이었다. 전체문헌이 된 16건의 기사는 한국 언론연구원의 KINDS와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 얻은 자료를 기초로 기사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연구대상 자료실 중 서울신문 자료실이 본 탐색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실제로 분석한 곳은 6개사였다.

ㄴ. 재현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6개 신문사 자료실의 '어린이 비만' 탐색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39.6%로 나타났다. 전체 16건의 기사 중 14

12 한국비블리아 제7집

건을 제시한 국민일보가 87.5%의 가장 높은 재현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10건을 제시한 동아일보(62.5%), 5건을 전달한 조선일보(31.3%)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3건의 기사만을 제시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재현율을 기록했다(표7 참조)

〈표 7〉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국민일보	14	87.5
2	동아일보	10	62.5
3	조선일보	5	31.3
4	경향신문	3	18.8
5	세계일보	3	18.8
6	한겨레신문	3	18.8
계		38	39.6

㉔. 정확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국내 6개 신문사 자료실의 ‘어린이 비만’ 탐색에 대한 평균 정확율은 57.9%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검색된 3건의 기사가 모두 탐색주제와 일치해 완벽한 정확율을

〈표 8〉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경향신문	3	3	100.0
2	한겨레신문	3	3	100.0
3	조선일보	5	3	60.0
4	국민일보	14	8	57.1
5	동아일보	10	5	50.0
6	세계일보	3	0	0
계		38	22	57.9

기록했다. 다음은 검색된 5건의 기사 중 3건이 적합한 조선일보(60.0%), 14건의 기사 중 8건이 일치한 국민일보(57.1%), 10건중 5건이 일치한 동아일보(50.0%)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세계일보는 검색된 3건의 기사가 모두 잡음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표8 참조)

ㄷ.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탐색 결과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16건의 전체문헌중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4건, 서울신문의 기사가 1건이 있어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은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11건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11건의 기사를 신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각 2건씩이었고 경향신문의 기사가 1건이었다. 분석 결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자사의 기사를 모두 제시해 완벽한 재현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세계일보는 2건의 기사 중 1건만을 제시, 50.0%의 재현율을 기록했고 경향신문은 1건의 자사문헌을 제시하지 못해 타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이 된 국내 5개 신문사의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81.8%로 나타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재현율(39.6%) 보다 높았다(표9 참조)

<표 9>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자사의 문헌 (건)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국민일보	2	2	100.0
2	동아일보	2	2	100.0
3	조선일보	2	2	100.0
4	한겨레신문	2	2	100.0
5	세계일보	2	1	50.0
6	경향신문	1	0	0
계		11	9	81.8

ㄹ.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어린이 비판’과 관련된 16건의 전체문헌에서 자사의 검색효율을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11건이었고 이 중 9건이 검색돼 평균 81.8%의 재현율을 기록했다. 검색된 9건의 기사 중 8건이 탐색주제와 일치해 자사의 기사에 대한 국내 5개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 정확율은 88.9%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자사의 기사에 대해 완벽한 정확율을 보인 반면 세계일보는 검색된 1건의 기사가 잡음으로 드러나 차이를 보였다(표10 참조)

〈표 10〉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국민일보	2	2	100.0
2	동아일보	2	2	100.0
3	조선일보	2	2	100.0
4	한겨레신문	2	2	100.0
5	세계일보	1	0	0
계		9	8	88.9

5.3 ‘노인산업’과 관련된 탐색

ㄱ. 전체문헌

1991년 1월 1일 부터 2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에 게재된 ‘노인산업’ 관련 기사는 모두 44건이었다. 전체문헌이 된 44건의 기사는 한국언론연구원의 KINDS와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 얻은 자료를 기초로 기사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ㄴ. 재현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노인산업’ 탐색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54.5%로 나타났다. 전체 44건의 기사 중

39건을 제시한 국민일보가 88.6%의 가장 높은 재현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27건을 제시한 경향신문(61.4%), 26건의 동아일보(59.1%), 22건의 조선일보(50.0%)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16건의 기사를 제공, 36.4%의 저조한 재현율을 기록했고 서울신문도 40.9%의 낮은 재현율을 보였다(표11 참조)

〈표 11〉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국민일보	39	88.6
2	경향신문	27	61.4
3	동아일보	26	59.1
4	조선일보	22	50.0
5	세계일보	20	45.5
6	서울신문	18	40.9
7	한겨레신문	16	36.4
계		168	54.5

㉔. 정확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노인산업’ 탐색에 대한 평균 정확율은 89.3%로 나타났다. 검색된 18건의 기사 모두가 탐색주제와 일치한 서울신문이 가장 완벽한 정확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검색된 20건의 기사 중 19건이 일치한 세계일보(95.0%), 16건 중 15건이 적합한 한겨레신문(93.8%)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경향신문(88.9%), 동아일보(88.5%), 국민일보(84.6%), 조선일보(81.8%) 등도 모두 80%가 넘는 좋은 정확율을 기록했다(표12 참조)

㉕.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탐색 결과 ‘노인산업’과 관련된 44건의 전체문헌중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기사가 각 5건씩 있어 자사

〈표 12〉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서울신문	18	18	100.0
2	세계일보	20	19	95.0
3	한겨레신문	16	15	93.8
4	경향신문	27	24	88.9
5	동아일보	26	23	88.5
6	국민일보	39	33	84.6
7	조선일보	22	18	81.8
계		168	150	89.3

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을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34건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34건의 기사를 신문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9건, 서울신문의 기사가 6건, 경향신문 5건,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가 각 4건,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2건이었다. 분석 결과 한겨레신문이 2건의 자사 기사를 모두 제시해 완벽한 재현율을 보였고 다음은 9건 기사 중 8건을 제시한 조선일보(88.9%), 5건중 4건을 제공한 경향신문(80.0%)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50.0%의 재현율을 보여 타사와는 대조를 이뤘다. 분석대상이

〈표 13〉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자사의 문헌 (건)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한겨레신문	2	2	100.0
2	조선일보	9	8	88.9
3	경향신문	5	4	80.0
4	국민일보	4	3	75.0
5	동아일보	4	3	75.0
6	서울신문	6	3	50.0
7	세계일보	4	2	50.0
계		34	25	73.5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73.5%로 나타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재현율 (54.5%) 보다 높았다 (표13 참조)

ㄹ.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노인산업’과 관련된 44건의 전체문헌에서 자사의 검색효율을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34건이었고 이 중 25건이 검색돼 평균 73.5%의 재현율을 기록했다. 검색된 25건의 기사 중 23건이 탐색주제와 일치해 자사의 기사에 대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 정확율은 92.0%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6개사가 100%의 완벽한 정확율을 보인 반면 조선일보는 전체 8건의 자사 기사 중 6건이 탐색주제와 적합해 75.0%의 정확율로 타사와는 차이를 보였다(표14 참조)

<표 14>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경향신문	4	4	100.0
2	국민일보	3	3	100.0
3	동아일보	3	3	100.0
4	서울신문	3	3	100.0
5	세계일보	2	2	100.0
6	한겨레신문	2	2	100.0
7	조선일보	8	6	75.0
계		25	23	92.0

5.4 종합

ㄱ. 전체문헌

1991년 1월 1일 부터 2년간 국내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안락사’ ‘어

린이 비만' '노인산업' 등 3개의 탐색주제와 관련된 기사는 모두 79건이었다. 이 중 '안락사' 기사가 19건, '어린이 비만'이 16건, '노인산업'이 44건이었다. 전체문헌이 된 79건의 기사는 한국언론연구원의 KINDS와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 얻은 자료를 기초로 기사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ㄴ. 재현율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새가지 탐색주제에 대한 평균 정확율은 50.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전체 79건의 기사 중 68건을 제시한 국민일보가 86.1%의 가장 높은 재현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44건을 제시한 동아일보(55.7%), 그리고 경향신문(51.9%), 조선일보(46.8%), 세계일보(44.3%)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24건의 기사를 제시하는데 그쳐 30.4%의 저조한 재현율을 기록했다. 한편, 2개의 탐색주제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서울신문은 전체 63건의 기사 중 20건의 기사를 제공해 역시 31.7%의 낮은 재현율을 보였다(표15 참조)

<표 15>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국민일보	68	86.1
2	동아일보	44	55.7
3	경향신문	41	51.9
4	조선일보	37	46.8
5	세계일보	35	44.3
6	서울신문*	20	31.7
7	한겨레신문	24	30.4
계		269	50.1

*) 서울신문은 3개의 탐색주제 중 '어린이 비만'을 제외한 두개의 탐색주제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임.

ㄷ. 정확율

세가지 탐색주제에 대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 정확율은 84.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특히, 검색된 20건의 기사 모두가 탐색주제와 일치한 서울신문이 가장 완벽한 정확율을 보였고 다음은 24건의 기사 중 23건이 적합한 한겨레신문(95.8%), 41건의 기사 중 37건이 적합한 경향신문(90.2%)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검색된 44건의 기사 중 33건이 탐색주제와 일치해 75.0%의 정확율로 7개 신문사중 가장 낮았다(표16 참조)

〈표 16〉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서울신문	20	20	100.0
2	한겨레신문	24	23	95.8
3	경향신문	41	37	90.2
4	세계일보	35	29	82.9
5	국민일보	68	56	82.4
6	조선일보	37	30	81.1
7	동아일보	44	33	75.0
계		269	228	84.8

ㄹ.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탐색 결과 ‘안락사’ ‘어린이 비만’ ‘노인산업’과 관련된 79건의 전체 문헌중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16건, 중앙일보가 6건, 그리고 서울신문의 기사가 1건이 있어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을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56건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56건의 기사를 신문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15건, 경향신문의 기사가 9건, 세계일보 8건,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각 7건, 서울신문 6건, 한겨레신문이 4건 이었다. 이 중에서 한겨레신문이 4건의 자사 기사를 모두 제시해 완벽한 재현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7건의

20 한국비블리아 제7집

기사 중 6건을 전달해 85.7%의 재현율을 기록한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6건의 자사 기사 중 3건만을 제시, 50.5%의 낮은 재현율을 보였다.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71.4%로 나타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재현율 (50.1%) 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표17 참조)

〈표 17〉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구분 순위	신문사	자사의 문헌 (건)	검색된 문헌 (건)	재현율 (%)
1	한겨레신문	4	4	100.0
2	국민일보	7	6	85.7
3	동아일보	7	6	85.7
4	조선일보	15	11	73.3
5	세계일보	8	5	62.5
6	경향신문	9	5	55.6
7	서울신문	6	3	50.0
계		56	40	71.4

ㄱ.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세가지 탐색주제와 관련된 79건의 전체문헌에서 자사의 검색효율을 알아 보는데 사용한 기사는 56건이었고 이 중 40건이 검색돼 평균 71.4%의 재현율을 기록했다. 검색된 40건의 기사 중 36건이 탐색주제와 일치해 자사의 기사에 대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 정확율은 90.0%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정확율(84.8%) 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이 검색된 자사의 기사가 모두 탐색주제와 일치해 완벽한 정확율을 보였다. 이 외에 동아일보(83.3%), 조선일보(81.8%), 세계일보(80.0%) 등도 모두 80%가 넘는 좋은 정확율을 기록했다(표18 참조)

〈표 18〉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

구분 순위	신문사	검색된 문헌 (건)	관련된 문헌 (건)	정확율 (%)
1	국민일보	6	6	100.0
2	경향신문	5	5	100.0
3	한겨레신문	4	4	100.0
4	서울신문	3	3	100.0
5	동아일보	6	5	83.3
6	조선일보	11	9	81.8
7	세계일보	5	4	80.0
계		40	36	90.0

6. 신문사별 평가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일간지 자료실을 대상으로 문헌전달 능력과 검색효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다. 문헌전달능력은 탐색에 걸린 시간으로 검색효율은 재현율과 정확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됐다. 또,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과 정확율을 측정, 자사의 문헌에 대한 검색효율을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문사별 평가를 해 본다 (표19 참조)

ㄱ. 경향신문

재현율(51.9%)과 정확율(90.2%),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100%) 등 세 부문에서 국내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을 넘어선 반면,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55.6%)은 평균 보다 낮아 재현율 보다는 정확율이 앞선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ㄴ. 국민일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국내의 7개 신문사 자료실 중 검색효율이

22 한국비블리아 제7집

가장 좋았다. 재현율(86.1%)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100%)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정확율(82.3%)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85.7%)에서도 좋은 효율을 보여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ㄷ. 동아일보

정확율 보다 재현율이 앞선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재현율(55.7%)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85.7%)에서는 평균 보다 높았으나 정확율(75.0%)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83.3%)은 평균 보다 낮아 재현율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결과는 재현율과 정확율의 반비례 관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ㄹ. 서울신문

재현율 보다 정확율이 앞선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정확율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이 모두 100%로 완벽했으나 재현율(31.7%)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50.0%)은 평균 보다 낮아 동아일보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냈다. 또, 재현율과 정확율의 반비례 관계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ㅁ. 세계일보

재현율과 정확율에서 모두 평균 보다 밀돌아 문제로 지적됐다. 재현율(44.3%)과 정확율(82.8%),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62.5%),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80.0%) 등 모든 부분에서 평균 보다 낮아 가장 미흡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ㅂ. 조선일보

정확율(81.1%)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73.3%)에서 평균 보다 높았으나 재현율(46.8%)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81.8%)에

서는 평균 보다 낮았다.

스. 한겨레신문

자사의 기사에 대한 검색효율은 완벽한 반면 전체문헌을 대상으로 할 때의 검색효율은 이 보다 낮아 자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과 정확율이 모두 100%로 완벽했고 정확율 (95.8%)도 좋았으나 재현율 (30.4%)은 평균 보다 크게 낮았다.

<표 19> 신문사별 평가

신문사 \ 검색효율	검색된문헌(건)	재현율(%)	관련된문헌(건)	정확율(%)
경향신문	41	51.9	37	90.2
국민일보	68	86.1	56	82.4
동아일보	44	55.7	33	75.0
서울신문	20	31.7	20	100.0
세계일보	35	44.3	29	82.9
조선일보	37	46.8	30	81.1
한겨레신문	24	30.4	23	95.8
계	269	50.1	228	84.8

신문사 \ 검색효율	자사의 문헌(건)	검색된 자사의 문헌(건)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
경향신문	9	5	55.6
국민일보	7	6	85.7
동아일보	7	6	85.7
서울신문	6	3	50.0
세계일보	8	5	62.5
조선일보	15	11	73.3
한겨레신문	4	4	100.0
계	56	40	71.4

신문사	검색효율	관련된 자사의문헌(건)	자사의 기사에대한 정확율(%)
경향신문		5	100.0
국민일보		6	100.0
동아일보		5	83.3
서울신문		3	100.0
세계일보		4	80.0
조선일보		9	81.8
한겨레신문		4	100.0
계		36	90.0

7. 맺음말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일간지 자료실을 대상으로 문헌전달 능력과 검색효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다. 문헌전달능력과 검색효율을 알아 보기 위해 대리이용자로 하여금 연구대상으로 삼은 9개 자료실을 직접 방문, 탐색을 시도했다. 대리이용자는 준비한 3개의 구체적인 탐색식을 제시하고 탐색에 걸린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체크해 문헌전달능력을 알아 보았다. 또,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한국언론연구원의 KINDS를 검색해 얻어진 자료를 대상으로 기사분류자의 확인을 거쳐 전체문헌을 확정하고 이를 각 사의 방문탐색 결과와 비교해 검색효율을 측정했다. 검색효율은 재현율과 정확율의 두 측면에서 평가됐다.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ㄱ. 연구대상으로 삼은 서울소재 9개 종합일간지 자료실 중 외부 독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코저 대외 정보서비스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2개사로 나타났다(22.2%)

ㄴ. 연구대상 자료실 중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탐색에 응하지 않아 본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탐색에 응한 곳은 7개사였다(77.8%)

ㄷ. 분석대상이 된 7개 신문사 자료실 중 서울신문을 제외한 6개 신문사가 5분 이내에 탐색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39초만에 3개의 탐색식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전달해 문헌전달능력이 가장 탁월했고 다음은 세계일보(1분16초), 국민일보(1분32초), 경향신문(1분44초), 한겨레신문(2분23초), 동아일보(2분37초)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탐색에 대한 반응에서도 3분35초를 기록, 타사에 비해 문헌전달능력이 떨어 졌다.

ㄹ. 본 연구의 탐색주제 중 '노인산업'과 관련된 기사가 44건, '안락사'와 관련된 기사가 19건,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기사가 16건이었다. 따라서 세 주제에 대한 전체문헌은 79건이었다.

ㅁ.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 재현율은 50.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이는 보통의 자료실이 갖는 70-90%의 재현율 보다 낮은 수치로 '신문사 자료실은 재현율이 낮을 것' 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국내의 신문사 자료실은 다른 유형의 자료실에 비해 재현율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7개 신문사중 국민일보가 가장 높은 86.1%의 재현율을 보여 보통의 자료실이 갖는 재현율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 이하였다. 특히 서울신문(31.7%)과 한겨레신문(30.4%)은 극히 저조한 재현율을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ㅂ.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평균 정확율은 84.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이는 보통의 자료실이 갖는 8-20%의 정확율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신문사 자료실은 정확율이 높을 것' 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국내의 신문사 자료실은 재현율이 낮은 대신 정확율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특히 서울신문은 검색된 20건의 기사 모두가 탐색주제와 일치해 완벽한 정확율을 기록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95.8%), 경향신문(90.2%), 세계일보(82.9%), 국민일보(82.4%),

조선일보(81.1%) 등의 순으로 모두 80%가 넘는 좋은 정확율을 보였다.

스.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재현율은 71.4%로 나타나 전체문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재현율(50.1%) 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국내의 신문사 자료실은 자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자사의 기사에 대해 완벽한 재현율을 보였고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도 85.7%의 높은 재현율을 기록했다. 모든 신문이 전체문헌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자사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재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일보는 전체문헌에 대한 재현율이 86.1%,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이 85.7%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ㅇ. 분석대상이 된 국내 7개 신문사 자료실의 자사의 기사에 대한 평균 정확율은 90.0%로 나타나 전체문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정확율(84.8%) 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검증됐다. 특히 자사의 기사에 대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 4개사가 100%의 완벽한 정확율을 기록했다. 모든 신문이 전체문헌 보다 자사의 문헌만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높은 정확율을 기록한 반면 세계일보는 전체문헌에 대한 정확율이 82.9%,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이 80.0%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즈. 신문사별 평가에서는 국민일보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국내의 7개 신문사 자료실 중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일보는 재현율(86.1%)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정확율(100.0%)에서 최고였으며 정확율(82.2%)과 자사의 기사에 대한 재현율(85.7%)에서도 좋은 효율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정확율 보다 재현율이 앞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신문은 재현율 보다 정확율이 앞선 시스템으로 드러나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전체문헌 보다 자사의 기사에 대해 철저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고 세계일보는 재현율과 정확율에서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參考文獻

- 崔成眞, 情報學原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 韓國言論研究院, 韓國新聞放送年鑑” ’93. 서울, 同 研究院, 1993.
- , KPI NEWSBASE 利用者 指針書. 서울, 同 研究院,
1990.
- Orr, R.H. and Olson, E.E. *Quantitative Measures as Management Tools. Materials prepared for use in a continuing education course, CE 7,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Chicago,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68.

附錄

1. 탐색주제 : 안락사

계재날짜 (년, 월, 일)	신문	기 사 제 목
91. 1. 5	경향	大法 안락사 인정 파문 확산 — 크루잔嬢 생명 줄제거에 반발
91. 1. 23	한국	美, 식물인간 생사 법정시비 늘어
91. 3. 3	조선	非情의 안락사 법정에 — 네 간호사, 노인 42 명살해
91. 8. 17	국민	안락사 논쟁 투표로 결판 — 美 워싱턴州 11월 — 南加州도 내년초에
91. 9. 16	한국	죽을 권리 보호 움직임 全美 확산
91. 10. 3	한국	워싱턴州 내달 안락사 투표 — 美 죽을 권리우 올한 논쟁 “시끌”
91. 12. 30	한국	환자에게 안락사 권리 알려준다 — 美 의회 환 자자결권 존중법 통과
92. 5. 19	조선	美 자살방조 의사 형사처벌 공방전 — “불치병 환자 죽음 선택 도와줄 의무 있다” 주장 화제
92. 5. 21	조선	미국인 63% “안락사 지지”
92. 7. 4	중앙	살인죄 기소 日 의사 안락사 파문
92. 7. 4	동아	안락사시킨 의사 — 日 살인혐의 기소
92. 7. 4	한국	안락사시킨 日 의사 살인혐의 기소
92. 7. 5	경향	중국, 안락사 첫 인정 — 의사, 가족 무죄확정
92. 7. 5	한국	중국, 안락사 인정
92. 7. 23	조선	안락사 도운 의사 무죄 美 법원 — 처벌 근거 없어
92. 9. 24	세계	美 캘리포니아 안락사 세계 최초 합법화 가능 성
92. 10. 7	한국	加州서 허용여부 주민투표키로 — 현실적 조 치, 의료 윤리 실종싸고 공방
92. 10. 10	경향	美 의사 환자 자살방조 “파문”
92. 10. 13	세계	식물인간 안락사 찬반

2. 탐색주제 : 어린이 비만

계재날짜 (년, 월, 일)	신문	기 사 제 목
91. 8. 4	한겨레	부산학생 17%가 비만
91. 9. 12	국민	어린이 비만 심각—5명중 1명
91. 10. 26	한겨레	국민학생 2.7%가 비만
91. 11. 9	세계	초·중학생 비만증 “위험수위”—서울지역 남자, 지방보다 2배나 심해
92. 2. 22	동아	소아 비만증 간식, 야식이 원인—운동에너지 소비보다 칼로리 섭취 많아
92. 3. 2	서울	할아버지 심장질환 사망한 家系—손자들 소아 비만증 위험 높다
92. 4. 2	경향	TV가 비만 어린이 만들수도
92. 4. 6	한국	TV시청 어린이 비만 유발
92. 4. 14	조선	비만 어린이 70-80% 성인병 증세
92. 4. 24	국민	어린이 비만 사회성, 정신건강 위축 우려
92. 5. 7	동아	비만료 인스턴트식품 삼가야
92. 5. 10	조선	어린이 비만—고혈압 등 성인병 위험, 조기 발견 치료를
92. 10. 5	한국	어린이 성인병 격증—국교생중 비만아 24%나
92. 10. 13	세계	저열량 식사로 비만증 해결—비만 어린이 식이요법
92. 10. 26	한국	소아비만
92. 11. 2	한국	어린이 비만, 수면 부족 탓

3. 탐색주제 : 노인산업(실버산업)

계재날짜 (년, 월, 일)	신문	기사제목
91. 4. 12	서울	국내 첫 실버타운 생긴다
91. 4. 30	국민	“노인고객을 잡아라” 실버산업 붐—관련업계 ‘쌈짓돈’ 겨냥 상품개발 경쟁
91. 5. 29	경향	노인고객 실버산업 날로 각광—건강·장수식품, 의류서 고급 유료 양로원 까지
91. 6. 4	동아	“노인전용 상품 많다”
91. 6. 18	조선	충무—거제에 만여평 노인타운
91. 7. 11	동아	보사부 시행규칙 공포—노인복지주택 휴양소 설치가능—실버산업 활기 펴뜻
91. 7. 23	조선	국내 실버산업 태동—노인들에 “효자노릇”대행
91. 11. 6	한국	실버산업 확산추세—年 2천7백억 시장· 참여업체들 늘어
91. 11. 6	서울	21세기는 실버산업시대
91. 11. 7	중앙	“기업들 노인복지산업에 관심을”
91. 11. 8	동아	“노인 고객을 잡아라”—日 실버산업 번창
91. 11. 10	국민	노인층 겨냥 실버산업 급부상
91. 11. 19	경향	대기업 실버산업에 눈뜬다—유료 양로원, 레저시설
91. 11. 22	국민	“노년겨냥” 실버금융상품 인기
91. 11. 24	중앙	실버산업
91. 12. 3	조선	노인산업—유료 양로원 수요 엄청
91. 12. 3	조선	일본 노인 돌보기 실버호텔 성업—수영장, 학원갓춘 전용 아파트 단지도
92. 1. 13	조선	노인인구 급증· 실버산업 활기—43兆엔 시장· 스포츠, 여행 등 대호황
92. 3. 4	경향	“실버산업” 노인복지—효심이 해결시대 지났다
92. 3. 23	조선	新노인층 실버산업 번창
92. 4. 13	경향	21세기 실버산업 “보라빛” 예고—인구 7%·年 5천억 시장

92. 4. 23	세계	‘외로운 노인들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빌려줍니다’ 日에 신종 실버산업 가족대여업 성업
92. 5. 7	서울	“고령화시대” 실버산업 각광—60세 이상 인구 214만명·보조용품 등 소비늘어
92. 5. 8	중앙	고령화 사회영향 실버타운 늘어난다
92. 5. 23	세계	안마기 등 노인관련 실버산업 확산
92. 5. 31	한겨레	노인들 살 만한 상품 없다
92. 6. 13	세계	실버산업 전망 밝다—노인들 욕구에 비해 공급시장 빈약
92. 6. 25	세계	유료양로시설, 복지프로 개발, 노인 주택사업—실버산업 육성 시급
92. 6. 25	서울	실버산업 육성해야—“보조금 지급, 稅지원필요”
92. 6. 26	한국	“2천년 고령인구 전체 10%·실버산업 육성 시급
92. 6. 28	경향	“기업 실버산업 진출 지원”—노인복지 위해세제혜택 등 줘야
92. 6. 30	한국	60세 이상 실버연령층 겨냥—노인용품 전문점성업
92. 7. 21	중앙	활발해진 실버산업—태동하는 노인복지촌 건설
92. 7. 27	조선	21세기는 노인시대 건강산업 급부상
92. 8. 20	서울	고령화 사회·실버산업 육성시급
92. 8. 25	중앙	실버산업 家電에 식품에·건강용품 “붐물”
92. 8. 27	동아	주거시설, 금융보험, 의료레저 실버산업 다양화—경제력 갖춘 노인증가로 활기
92. 8. 29	서울	“노년을 안락하게” 각광받는 실버산업
92. 9. 14	조선	미 노약자 상품 잇달아 히트
92. 10. 2	국민	“실버산업 선진화 학습 목적”
92. 10. 2	한겨레	낮시간대 노인말벗, 병수발 ‘탁로사업’ 국내첫선
92. 10. 5	한국	“낮동안 노인 돌봐 드립니다” 탁로 복지시설 첫선

32 한국비블리아 제7집

92. 11. 12	한국	실버산업 활성화 시급 — 양로원 등 정책부재 로발전저해
92. 11. 16	조선	노인산업 급속확산 — 주거시설, 전문병원, 건 강용품 등 다양

ABSTRACT

Evaluation of the Newspaper Library
—With Emphasis on the Document Delivery Capability
and Retrieval Effectiveness—

No, Dong-Jo*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for the newspaper libraries in Seoul an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ts document delivery capability.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purpose, representative users visited seven newspaper libraries and checked their searching time.

Document delivery capability was checked by units of hour, minute, second (searching time). Retrieval effectiveness was tested through the recall ratio and the precision ratio.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Most of the newspaper libraries excellent to the document delivery capability ; 6 newspaper libraries delivered the data related subject.
- 2) The newspaper libraries were came out 50.1% the mean recall ratio and 84.8% the mean precision ratio about the all materials.
- 3) Concerned their own articles, the newspaper libraries showed 71.4% the recall ratio and 90.0% the precision ratio. That means their own articles we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 4) The Kookmin Ilbo library had the most excellent system, and the precision ratio of The Dong-A Ilbo library prior to the recall ratio.

The Han Kyoreh Shinmun library had a excellent arrangement in own articles, but The Segye Times library had problem in every parties.

* Part-time Instructor, Korea School of Library Services.